

문제1. <3자비교>

1. 일단 비교 기준은 잘 잡으셨는데, 근거 서술이 미약합니다. 뜯어볼게요.

“(가)의 그리스인들과 남유럽인들은 새로운 종교를 수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내부에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천편일률적인 북유럽인들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보편적,절대적으로 받아들인다.이는 그들의 수준이 저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여기서 남유럽인들은 새로운 종교 수용을 안하는 이유 = 다양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셨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뭐 그럭저럭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 것도 완벽한 근거서술은 아닙니다.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새로운 종교가 완벽한 문제해결이 불가능해 수용하지 않는다 까지 서술해야 되구요. 넘기더라도, 북유럽인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 = 보편적 절대적이고, 저급하다 라고 하셨는데 북유럽인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저급해지나요? 아니에요. 받아들이면, 한 나라가 하나의 종교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므로 그만큼 한 사회가 직면하는 문제가 모두 천편일률적이라고 볼 수 있기에 다양성이 결여된 문화는 저급해지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 근거 서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제시문을 그냥 문장 베껴온 수준에 그치고 있네요.

2. “(나)는 예술사에 있어서 비연속의 연속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나)의 아류는 새로움이 등장할 때 거부하지 않는다.아류는 걸작과 걸작을 매개한다.이과정에서 아류는 걸작을 모독하지만 그 뒤에는 걸작에 대한 존경이 숨어있다. 모독을 통해 존경에 이르는 것은 종교에서도 잘나타는 현상이다.즉 (나)의 새로움인 걸작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알 수 있다.“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네요. 주제가 새로움인 걸작을 수용해야 된다는데, 이에 대한 근거 서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앞에 서술된 내용들은 전혀 새로움이 걸작을 수용해야된다는 논리적인 근거 서술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사람에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과정을 역사에 적용시키고 있다. 인간은 집단적인 성찰을 통해 진보를 한다.이런 진보는 대체와 축척을 통해 발생되고 이과정을 통해 발생한 논리적인 투쟁과 결합을 우리가 채택하고 받아들여그것을 역사의 사건을 설명하는데 이용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도 왜 대체와 축척을 통한 진보가 새로움인지 전혀 연계성이 없습니다.

4. 마지막 문단은 사실상 중복서술이에요, 바로 이전에 (나)와 (다)를 나눌 때 왜 굳이 문단을 나누면서 까지 비교했는지 모르겠어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설명하면서 하면서 앞에서 나타난 근거서술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형식을 나누려고만 하면서 근거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는 문제가 생겼네요.